

# 연세대,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개최...문누가·신인환·이상훈 선교사 수상

윤혜연 기자 · hyeyeon@insight.co.kr

입력 : 2018-10-13 09:46:21



사진 제공 = 연세대학교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문누가, 신인환, 이상훈 선교사가 올해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3일 연세대학교는 12일 오후 3시 연세대 루스채플 예배실에서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연세대 설립자인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 제정한 상으로, 세계 오지에서 헌신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올해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문누가, 신인환, 이상훈 선교사가 선정됐다.

문누가 선교사는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청년대학생 제자훈련, 치과 의료교육과 더불어 현지 자립형 치과병원을 설립하며 24년간 선교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전문성을 살린 의료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현대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해나가고 있는데, 지난 18년간 30여 명의 치과 의사 강사요원을 배출했다. 또 이들을 통해 연간 3천명에 달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또 신인환 선교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아프리카 브룬디의 작은 시골마을에 한센인들을 위한 수술병원을 설립했다.

아내인 신용남 선교사와 함께 이들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가난과 질병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언더우드 / 연세대학교

이상훈 선교사는 24년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개신교대학 개발학과에서 강의를 했으며, 의료활동과 난민구호활동을 펼쳐왔다.

르완다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까지 의료 서비스와 식량 물자를 보급하고 있으며, 전후 지역 복구와 지역 개발, 주택건축, 아동 후원, 전쟁미혼모 직업훈련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르완다 최초의 여성 대학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지속가능한 선교, 지역에 맞는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뉴스

---

직원들 전부 올린 아이유가 소속사와 '재계약'하면서 내건 '조건'

---

도끼, '의료 사고' 당해 '반려견' 잃었다

---

'연플리3' 여친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기억하러 '메모'해 놓는 남자친구 준모

---



뉴스 태그

연세대 언더우드 언더우드선교상

## 연세대,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개최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press@cdaily.co.kr)

입력 2018. 10. 13 05:42 | 수정 2018. 10. 13 05:42



공유하기 15개

좋아요 1.7만개



트윗

문누가, 신인환, 이상훈 선교사 수상자로 선정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을 마치고. ©연세대 제공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 언더우드기념사업회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연세대 루스채플 예배실에서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기리고자 2001년 제정한 상으로, 세계 오지에서 헌신적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를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로는 문누가 선교사와 신인환 선교사, 이상훈 선교사가 선정됐다.

문누가 선교사는 중앙아시아 K국에서 청년대학생 제자훈련, 가정교회 사역, 치과 의료교육 및 현지 자립형 치과병원들을 설립하며 24년간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문성을 살린 의료선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현대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해나가고 있는데, 지난 18년간 30여 명의 치과 의사 강사요원을 배출, 이들을 통해 연 3,000명에 달하는 인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신인환 선교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아프리카 브룬디의 작은 시골마을에 한센인들을 위한 수술병원 센터를 설립했다. 아내인 신응남 선교사와 함께 한센인들을 치료하는 한편 가난과 질병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상훈 선교사는 24년간 르완다에서 개신교대학 개발학과 강의, 의료활동, 난민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르완다뿐 아니라 우간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까지 의료 및 식량 물자를 보급하고 있으며 전후 지역 복구 및 지역 개발, 주택건축, 아동 후원, 전쟁미혼모 직업훈련과 상담 치료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역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현재 르완다 최초의 여성대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지속가능한 선교, 지역에 맞는 선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본 기사

"신학 공부 위해 인문학 선행 공부 필요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교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명성교회 분립하라...몇 교회 중 하나를 김하나 목사가 맡아라"



밀려오는 동성애...건강한 성과 생명 윤리를 생각해보다



목회자의 성문제, 불륜인가? 성범죄인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2018 몽골 한인선교사대회 개최



밀려오는 동성애...건강한 성과 생명 윤리를 생각해보다



NEW 푸조 5008 7인승 SUV



제103회 예정합동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열려



"제3세계 선교, 대학 세워 교육하는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공유하기 15개

좋아요 1.7만개



트윗

by





## 언더우드 선교상

이 상 훈 선교사

귀하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르완다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육활동, 난민구호활동 그리고 지역개발 활동을 통해 언더우드의 선교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에 그 공로를 높이 기려, 연세대학교가 제정한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12일

언더우드기념사업회장  
연세대학교 총장 김용학

